

# 찾아지고 커지는 한반도 지진...2.0 이상 올해에만 76회

## 전년도 규모 2.0 이상 지진 발생은 70회 지난 10년, 경북서 2.0 이상 지진 461회

올 한해 규모 2.0 이상 지진이 76회 발생하는 등 전년보다 빈번하게 지진이 발생하면서 행정안전부가 지진행동요령 안내에 나섰다.  
11일 행정부에 따르면 지진 관측이 시작

된 1978년부터 2021년까지 한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 지진은 총 2024회로 집계됐다.  
올해의 경우 지난 9일 기준 76회의 규모 2.0 이상 지진이 발생했다. 전년도에는 규모

2.0 이상 지진이 70회 발생했다.  
2012~2021년간 발생한 지진을 살펴보면 규모 2.0 이상 3.0 미만의 지진이 88.5%로 가장 많았다. 규모 3.0 이상 4.0 미만은 10.1%, 규모 4.0 이상은 1.4%다.  
지역별로는 2016년 9월 규모 5.8의 경주 지진과 2017년 11월 규모 5.4의 포항지진이 발생한 경북이 461회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많았다.  
행정부는 지진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 만

큼 행동 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지진으로 건물이 흔들릴 경우 실내에서 몸을 보호하며 대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사전에 마련하거나 위치를 파악해 두는 것이 좋다. 지진이 발생하면 탁자 등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피할 곳이 없을 경우에는 주변의 방석·가방 등으로 머리를 보호한다.  
지진이 멈춘 후에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

한다.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공원이거나 운동장처럼 낙하물이 없는 넓은 공간으로 대피한다.  
차호준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지진은 다른 재난과 달리 사전 예측이 안 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평소 지진에 대비하고 지진행동요령을 숙지해 위급상황 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선욱기자



소비자기행동,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마라톤 대회 11일 서울 광진구 독성 한강공원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 시민 캠페인 '소비자기행동 2022 자연드림 서울 송년 마라톤대회'에서 참가자가 결승점을 통과하고 있다.

## 광주 광산구, 십수억 들여 만든 공공앱 이용률 저조...“애물단지”

### 윤영일 의원 “앱 구축계획부터 심사숙고했어야” 질타 앱 제작사 관련 비위 의혹 제기...사실 관계 파악 방침

광주 광산구가 역대 예산을 들여 만든 공공 앱들이 저조한 이용 실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감사실이 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윤영일 의원은 지난 7일 제27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구정 질의를 통해 광산구가 제작·운영 중인 공공 애플리케이션(공공 앱)의 저조한 이용 실태를 지적했다.  
광산구는 지난 3년간 공모 사업을 통해 공공 앱 4개를 제작, 이 중 3개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앱은 ▲'광산ON'(시민 의견 수렴 창구) ▲'광산시민행복주차장'(주차장 공유 앱) ▲'월곡톡'(월곡동 주민 소통 창구) 등이다.  
윤 의원은 '월곡톡'의 경우 지난 2020년 국토부 공모 선정을 통해 총 10억 원(국비 5억 원, 시·구비 각 2억 5000만 원)을 들여 만들었지만 하루 평균 이용자 수는 70여 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광산시민행복주차장' 앱은 6억 원(국비 3

억 원·구비 3억 원)이 제작비로 투입됐지만 올해 8월 기준 가입자는 1835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앱의 하루 평균 이용자는 집계조차 안 되고 있다.  
'광산ON' 역시 제작에만 예산 4800만 원을 들였지만 하루 평균 이용자 수는 30명 정도에 그쳤다고 윤 의원은 질타했다.  
윤 의원은 "공공 앱들이 들인 예산에 비해 효율적인지, 얼마나 활용되는지 의구심이 든다. 공공 앱은 구축 계획부터 최대한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며, 이미 구축된 앱은 높은 실효성·활용성을 유지하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낮은 활용도에 비해 지속적 유지 보수 비용이 필요한 애물단지로 전락해서는 안 될 것이다"면서 앱 제작 업체의 횡령·비용 부풀리기 등 비위 의혹도 제기했다.  
윤 의원은 "광산시민행복주차장' 앱은 제작 과정에서 구입한 앱 연동 주차 센서 등 장



치 일부가 세금 계산서에 명시된 것보다 저렴한 것이 쓰인 정황이 있다"며 "'월곡톡' 앱 전용 공기질 측정 센서는 계약 당시 500개보다 많은 800개를 설치, 장비 추가 분만큼 설치비를 정산받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광산구는 조만간 감사를 벌여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공공 앱 관련 사업을 도맡은 부서들을 중심으로 사실 관계를 조사하는 중"이라며 "운영 실태를 재차 파악해 비위 등이 드러날 경우 적절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임형택기자

## 광주시, 내년부터 불법 노상적치물 단속 강화

### 2023년 1월부터 과태료 부과 등 강력 단속

광주시는 내년부터 상습적이고 고착화 된 노상적치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런 단속 강화는 보행자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 등의 불편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점, 보행 환경 개선과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대한 필

요성 때문이라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광주시는 지난 6일 5개 자치구와 함께 정비방안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고, 연말까지 안내장 배부·홍보 캠페인 등을 통한 대대적인 사전 홍보를 벌인 뒤 자진 정비를 유도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는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노

상적치물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단속은 계고장을 1~3회 발부, 자진 정비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행정대집행(강제철거)·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오영걸 광주시 군공항공교통국장은 "불법행위 근절로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안전한 보행로 확보와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시민 모두가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오유나기자

#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